

민주주의 투쟁 - 사형 선고 - 노벨평화상



‘DJ 격동의 삶’ 무대 위에

창작 뮤지컬 ‘나의 대통령’ 28일~10월 26일 부천시민회관

전남 문화예술브랜드 선정...비상 계엄에 광주 공연 무산  
젊은 야당 정치인에서 대통령 ‘파란만장 여정’ 2막 구성  
정치인 이면의 인간 김대중 그려...광주·전남 공연 계획도

1971년 대통령 선거 출마부터 신군부에 맞선 투쟁, 1980년 5·18 광주와 사형 선고, 그리고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격랑을 온몸으로 관통하는 여정이었다. 그가 남긴 치열한 신념과 용기, 화해와 포용의 철학은 비상 계엄을 겪은 작금에 더 절절하게 다가온다.

DJ의 삶을 담아낸 창작 뮤지컬 ‘나의 대통령’이 무대에 오른다. 지역에 앞서 오는 28일부터 경기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리는 것. VIP 시사회를 시작으로 10월 26일까지 두 달간 이어지는 이번 공연은 한 정치인의 일대기를 넘어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과 인간적인 고뇌를 예술로 증언하는 무대다. 주창·주관 협동조합 손에손에.

이번 작품은 지난 2023년 전남 문화예술브랜드 육성사업에 선정돼 목포에서 쇼케이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프리뷰 공연이 예정돼 있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전격 취소됐다. 공연을 불과 일주일여 앞둔 시점이라 안타까움이 컸다.

당시 공연을 위한 모든 준비는 완료된 상황이었으나 창작진과 배우들은 마지막 리허설에 몰두하고 있던 중이었다. 공연 제작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목표액의 4배가 넘는 460여만 원이 모였고,

창작진·배우와 함께하는 DJ 신안 생가 투어도 예정돼 있었지만 전역 환봉 및 취소됐다.

박석영 손에손에 대표는 “작품의 핵심이 ‘민주주의’인데 그 가치가 위협받는 혼란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대를 올릴 수는 없었다”며 “공연을 기다리던 배우들이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든 결정이었다”고 회고했다. ‘민주주의의 성지’로 불리는 광주에서 공연이 멈춘 것은 작품을 준비해온 이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의문을 안겨주었다. 특히 신군부 비상계엄에 맞섰던 DJ의 삶을 조명하는 공연이 다시 비상계엄으로 인해 멈춰야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식되기도 했다.

작품은 이후 재정비를 거쳐 경기 부천에서 장기 공연으로 첫 무대를 올리게 됐다. 박 대표는 “당초 광주 프리뷰 이후 수도권으로 이어갈 계획이었다”며 “작품의 의미를 공감하고 장기 대관이 가능했던 부천에서 공연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이 열리는 부천은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 당시 ‘윤석열차’ 전시 논란이 벌어졌던 장소이기도 하다. 박 대표는 “이곳에서 공연을 시작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율성을 환기시키는 의미도 있다”라며 “이번 무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 전 대통령의 문화 철학을 실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뮤지컬은 2000년 겨울, 노벨평화상 수상을 앞두고 오슬로 시청 대기실에서 화상에 잠긴 김대중의 시점으로 시작된다. 총 2막으로 구성된 작품은 그의 삶을 거대한 정치 드라마이자 한 인간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젊은 야당 정치인에서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자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여정을 통해 인간적인 고뇌와 꺾이지 않는 신념에 초점을 맞췄다.

김대중 역은 배우 안덕용, 이희호 여사 역은 손현정이 맡았으며 조희, 김류하, 김경일 등 30여명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대본은 전남수 작가가, 연출은 권호성, 음악은 이슬아, 안무는 최병규가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더했다.

권호성 연출가는 “정치인 김대중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인간 김대중, 그리고 사랑 앞에서 부드러웠던 남자 김대중을 무대에 세우고 싶었다”며 “그 두 얼굴의 간극,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진짜 모습이야말로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연팀은 부천 공연 이후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시 무대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상계엄으로 멈췄던 공연이 다시금 관객을 만나는 길목에 섰다. S석 7만7000원, R석 8만8000원, VIP석 11만원. NOLE티켓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고향집’

김도수 시인, 10년만에 두번째 시집 ‘진피 오리길’ 펴내

“전남 광양에서 오랜 객지 생활을 하다 1998년 2월 팔려버린 고향 집을 샀습니다. 주말마다 아내 딸 아들 앞세우고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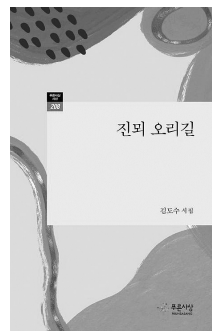
김도수 시인에게 고향, 고향집은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안식처’다. 그는 시집 ‘진피로 간다’, 동시집 ‘콩밭에 물방’ 등을 펴낸 시인이기도 하다.

최근 김 시인이 10년 만에 두 번째 시집 ‘진피 오리길’ (푸른사상)을 발간했다.

그는 “고향 덕분에 행복이란 단어를 늘 가슴에 품고 살 수 있었다”며 “유년 시절의 기억은 편린들은 떼어내려 해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텃지리는 전복 임실의 진피마을이라는 곳이다. 그에 따르면 유년의 기억은 오로지 “진피마을밖에는 없다”고 할 만큼 기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복지대 덮여/ 아랫목 이불 속에 넣어둔/ 윤기 좌르르 흐르는 흰쌀밥 생각나/ 얹어져 무릎에 피가 나도/ 손 탈탈 털고 일어나/ 바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달리던/ 진피 오리길”

‘하룻길’이라는 시는 초등학교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달려가는 풍경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불 속에 묻어둔 흰쌀밥그릇을 떠올리다 얹어져 피가 흐르지만 아픔도 잊고 집으로 내달리는 장면을 그렸다.

그에게 ‘진피마을’은 그런 마음의 고향이자 유년을 상징하는 장소다. “꿈속에서 고향 찾아가는 길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말에서 고향에 대한 깊은 정을 느끼게 한다.

문신 시인(우석대 교수)은 “김도수 시인에게 그리움의 대상이자 도달하지 못할 세계는 단연코 ‘진피’”라고 평한다.

한편 김 시인은 산문집 ‘섬진강 푸른 물에 정·검·다·리’, ‘섬진강 진피밭에 사랑버’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예술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

광주문화재단, 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서 워크숍

문화예술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 실무자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워크숍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하는 ‘보조금 정산’, ‘브랜딩 전략’이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회용)은 오는 8일(오후 2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대강당에서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워크숍’을 연다.

첫 번째 강의는 한미회계법인 김소영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나도 이제 보조금 마스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보조금 집행부터 정산까지 실무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는 전예원 ‘어글리밤’ 대표가 ‘문화예술교육단체, 브랜딩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강

의를 한다. 단체의 정체성 등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브랜딩 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협업을 콘텐츠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펼쳐온 전 대표는 브랜딩 방향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

누구나 현장 접수로 당일 참여 가능하며 무료.

노회용 대표이사는 “이번 워크숍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업무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들을 수 있는 기회”라며 “보조금을 정산하는 법이나, 또는 단체의 특성 등을 부각시키는 데 고민하는 문화단체라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다룬 뮤지컬 ‘나의 대통령’이 오는 28일~10월 26일 경기 부천시민회관에서 펼쳐진다. 공연 이미지컷.



〈손에손에 제공〉



‘문화누리카드’ 경험, 감동의 순간은?

문화예술위, 31일까지 수기 공모전...80편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제12회 문화누리카드 수기 공모전 ‘문화로 완성되는 한편의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부문과 사업 담당자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면서 경험한 감동의 순간과 변화의 계기, 문화 향유의 즐거움 등을 주제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등 총 80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이나 공식 블로그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10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2636억원과 지방비 1109억원 등 37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64만명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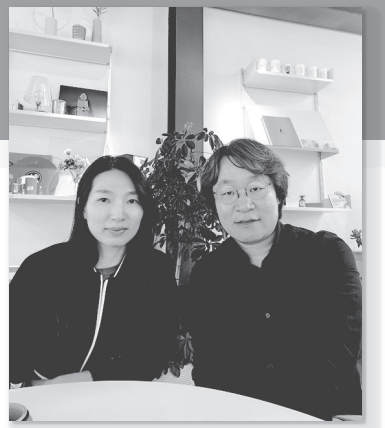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